



1980년대 후반들어 무등산의 약수가 인기를 끌면서 휴일이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약수터로 몰려들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사유지 조기 매입해야 효율관리 가능 무분별 개발 자제, 지자체간 공조해야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⑦ 해결 과제 (2)

사유지 70% 공시지가 1천억원  
“재산권 침해”...매입 민원 봇물  
2개 시·도 4개 지자체 개발 경쟁  
환경보호·시설확충 일원화 시급

광주와 전남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총 면적은 75,425km<sup>2</sup>다. ▲광주 북구 26,865km<sup>2</sup> (35.6%) ▲동구 20,789km<sup>2</sup> (27.6%) ▲전남 화순군 15,802km<sup>2</sup> (21.0%) ▲담양군 11,969km<sup>2</sup> (15.9%) 등 광주·전남 등 2개 시·도와 4개 지자체에 포함돼 있다. 이는 과거 도립공원 면적(30,233km<sup>2</sup>)의 2.5배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53,119km<sup>2</sup>이며 전체 면적의 70.4%에 이른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 중 경주(89.6%)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유지 비율이다. 전국 국립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도 34%에 불과하다.

◇사유지 매입 서둘러야=국립공원 무등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사유지를 최대한 빨리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시 등에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등산 내 사유지 매입을 요구한 민원인만 30명이 넘는다.

환경부는 연차별 사유지 매수계획을 통해 매년 20~50억 원씩을 사유지 매수비용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등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만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의회 김성호 의원이 최근 임시회에서 시장 질문을 통해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토지소유자들의 청원도 점검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급성이 있는 사유지부터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단체간 협력 절실=무등산은 국립공원 승격 이후 한 달도 안돼 구설수에 휘말렸다. 광주시와 환경부가 친환경 시설 설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가 무등산 일대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와 환경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라며

반발했지만, 다행히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면적으로 보면 광주 동구·북구(63%)와 전남 화순·담양(37%) 등 2개 시·도 4개 지자체가 얹혀 있는 만큼 특정 지자체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관리권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무등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여전히 지자체간의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부터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힘쓰면서 개발계획을 놓고 선의의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자체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광주 ▲북구는 원효사 주변 식당정비 ▲동구는 무등산 중심사 등산로 진입로인 화동삼거리 유흥업소 정비 ▲담양군은 무등산 등산로 정비, 특산물과 연계한 체험관광 발굴 등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담양군도 남면 인근에 2만㎡ 면적의 야영장을 비롯한 탐방로,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을 건의한 상태.

이처럼 각 지자체의 무등산 개발 관련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무등산개발 계획은 지역별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구도 속에서 장·단기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등산이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이 형성한 공동대표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사유지 매입과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 계획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와 무등산 송갑석 (사)광주학교 교장

## 역사길 답사 24번째 진행...책 출간도



송갑석 (사)광주학교 교장이 지난해 가을 제 35기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에 참석해 옛길 3구간(의병길) 품임제(해발 450m) 부근 암반 안에 설치된 지진관측소를 설명하고 있다.

무등산 역사길은 옛길 3구간의 후반부 길을 일컫는 명칭이다. 무등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에게도 이 길은 아직 생소하다. 3년 전 어느 봄날 나는 이 길을 처음 걸었고 이 길에 스며있는 역사와 추억을 만났다. 그날 이후 작은 탐방객이 이 길을 걸었다.

어떤 날은 혼자 걸었고 어느 때는 여럿이 함께 걸었다. 아스라한 기억과 풍문으로 떠도는 역사길의 이야기를 책을 사들이고 자료를 뒤져가며 때로는 앞서 연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알아갔다.

그러다 무모하게도 ‘무등산 역사길에 내게로 왔다’라는 책까지 내게 됐고, 공식적인 역사길 답사도 벌써 스물네번째 진행되고 있다.

역사길의 시작은 충장사다. 스물일곱에 전국의병장이 돼 스물아홉에 임금의 손에 죽은 김덕령의 서늘한 혼을 위로하고 기리는 곳이다. 충장사를 나와 오솔길을 걷다보면 환벽당을 세운 사촌 김윤제의 재실에 이르고 다시 길은 원효계곡으로 흘러내려가 풍암정에 닿는다.

슬픔과 절망에 몸부림쳤던 한 사내가 온

돈하다 생을 마친 곳이다. 아름답고 슬픈 정자 풍암정을 뒤로하고 길은 마을로 향한다.

지금은 무등산 수박만 남았지만 저 옛날 쇠와 종이를 만들고 도자기와 솥을 구워냈던 마을들이다. 샘바위골, 지심터골의 조각논들과 새나드리들, 평매들은 예나 지금이나 원효계곡의 촉촉 속에 기를지다.

삼괴정을 들린 후 급곡마을을 뒤흔들고 넘어가면 들이 펼쳐지고 들 가운데 작은 학교가 보인다. 충효분교다. 가을날 들녘이 황금으로 물들 때 충효분교보다 아름다운 학교는 없다.

‘풍암정만, 소쇄원만, 환벽당만...’ 충효분교의 반 이름이다. 왕으로부터 마을 이름을 하사받은 충효동 왕버드나무 세 그루는 400년 세월동안 마을을 지켜오고 있다. 소쇄원, 식영정과 함께 16세기 호남사람의 거품이었던 환벽당을 지나면 역사길의 종점 취가정이다.

나라가 저물어가던 1890년, 김덕령의 후손들이 그의 뜻을 기려 세운 정자다. 6km의 무등산 역사길은 트레킹코스다. 시민 여러분도 탐나는 대로 걸어보기를 권한다.

무등산 갤러리 이강하 작 '무등산 여명의 태평소' (1992)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259 x 194 cm)

고(故) 이강하 화백의 아들 이조흥 작가는 “아버지는 항상 남도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등산 시리즈다. 무등산에 비단길을 깔고 우리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태평소를 든 여자를 그려, 세속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다는 정신을 담았다”고 말했다.



##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